

2005 지방재정 세미나

개 회 사

조 기 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오늘 韓國地方財政學會와 저희 地方財政共濟會가 共同으로 개최하는 「2005地方財政세미나」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주신 內外貴賓 여러분께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특히 國政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오영교 行政自治部 長官님, 김태호 慶尙南道 知事님, 그리고 윤영진 韓國地方財政學會 會長님을 비롯해서, 分野別主題를 맡아 말씀을 해주실 發表者와 討論者 여러분들께 甚深한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평소 地方自治의 현장에서 地域發展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地方財政 改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세미나에 동참하여 주신 地方議會 議員님들과 公務員 그리고 地方財政에 관한 많은 研究를 해주시는 學會 會員 여러분들께도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地方自治團體長을 住民投票에 의해 選出함으로써, 본격적인 地方自治制를 실시한 지 꼭 10年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地方自治制는 어려운 與件과 日淺한 期間에도 불구하고 住民의 福祉增進 · 地域開發의 活性化 · 地域內 資源配分の 自律性 確保는 물론, 地方의 成長潛在力을 살리고 地域的 多樣性を 추구함으로써, 地方自治의 窮極的 目標인 住民의 “삶의 質” 향상에 커다란 寄與를 해왔다고 評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더 完璧한 地方自治의 實現을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의 期待水準에 미치지 못하는 未洽한 점도 적지 않으며, 改善하고 解決해야 할 課題가 山積해 있다고 합니다.

地方財政에 있어서도 地方自治制의 실시를 기점으로 해서, 指標上으로는 地方財政

總量이 그 이전과는 比較할 수 없을 정도로 增加하였고, 地方財政의 構造와 運營方式이 改善되는 등 可視的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地方財政의 變化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環境的 與件은 좋다고 할 수 없고, 地方財政의 脆弱點들이 계속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IMF 이후 다시 찾아온 國家 및 地域經濟의 不況 속에서 國家의 租稅體系改編과 연계된 地方稅制의 調整이 계속되고 있고, 財産稅制 중심으로 이루어진 地方稅收 伸張의 限界로 인한 自體收入의 停滯 · 地域開發事業의 증가에 따른 과도한 財政需要와 債務負擔의 확대 · 國家의 移轉財源에 대한 過剩期待와 일부 自治團體의 비효율적 財政運營 등으로 住民들의 期待水準을 완전하게 充足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參與政府는 大統領直屬으로 政府革新 · 地方分權委員會를 설치하여 地方分權과 均衡發展을 위한 다양한 改革課題를 選定 · 推進하고 있으며, 地方財政部門은 동 委員會 傘下 財政稅制專門委員會를 통해서 각종 課題別 細部推進計劃을 樹立 · 推進하면서 發展對策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地方財政構造의 改革과 地方稅制의 改編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향후에도 地方財政이 當面할 각 部門別 諸般 狀況과 與件을 分析하여 制度和 運營改善을 기함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地方財政이 더욱 發展할 수 있도록 財政의 質·效率性和 健全性 그리고 責任性을 極大化할 수 있는 다양한 改革的 努力和 戰略을 摸索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要求되는 것은 現實狀況의 精確한 認識과 精巧한 分析, 問題解決에 있어서 觀念的인 接近方式보다는 具體的이고 實踐的인 代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地方自治制 實施 10周年과 맞물려, 地方財政部門의 發展을 평가해보고, 향후

의 改革방향과 課題에 대하여 論議하는 것은 그 意義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脈絡에서 韓國地方財政學會와 저희 地方財政共濟會가 「分權型 地方財政改革의 方向과 課題」라는 主題로 이 번 세미나를 開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번 세미나는 2개의 分野別 主題와 綜合討論으로 구성하였고, 특히 地方財政發展의 主役이신 地方自治團體 公務員의 생생하고 現場感있는 事例發表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명실공히 理論과 實務가 접합된 열띤 討論의 場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가 地方財政의 發展과 地方自治의 정착은 물론, 國家發展과 地域發展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導出되고, 다양하고도 생생한 地方自治團體 現場의 목소리가 充分하게 開陳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수려한 自然景觀과 淸淨海域을 자랑하고, 李舜臣 將軍이 民族精氣를 드높여준 由緒깊은 歷史都市인 이 곳 慶尙南道 統營市에서 이와 같이 유익한 大討論會를 마련한 것을 더욱 뜻 깊게 생각하고, 이 번 行事的 準備와 支援을 위해 勞苦를 아끼지 않은 慶尙南道와 統營市의 關係者 · 學會 會員 그리고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參加者 여러분께 다시 한번 感謝를 드립니다.

自然이 있고 歷史가 있고, 文學과 藝術이 있는 이 곳 統營에서 즐거운 日程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2005年 7月 7日

韓國地方財政共濟會
理事長 趙基安